

동시대 공동체 정신 깃든 '마당', 베니스에 펼치다

광주 정신을 규정할 수 있는 어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민주, 평화, 인권, 그리고 대중정신 등. 그러나 이 모든 어휘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마당'이 아닐까 싶다. 전통적 관점에서 마당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 공간'이자 마을이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창설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4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동시대 공동체 정신이 깃든 '마당'을 모티브로 특별전을 열 계획이어서 화제다.

광주비엔날레는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설 30주년 기념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을 베니스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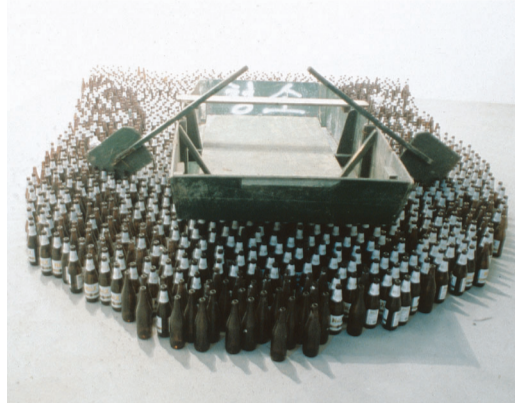
특히 이번 특별전은 병행전시로 기획됐으며,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가 열리는 기간(4월 18일-11월 24일)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자아르디노 비안콘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윤창욱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은 "이번 특별전은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 30개 중 하나로 선정돼 열린다"며 "병행전시'는 페드로사 예술감독이 콘텐츠 등을 감안해 1차로 선정하고 이후 사무국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구조로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지난해 응모해 최근 통보를 받아 결정됐다"며 "기획부터 제안, 그리고 예술감독 모두 직원들이 도맡아 진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창설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전시회로 '휘트니비엔날레', '카셀 도쿠멘타'와 함께 권위를 인정받는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베니스비엔날레 '병행전시'의 30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은 현대 미술 비엔날레로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기념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병행전시 4월18일~11월24일...3개 섹션 아카이브·디지털 소장자료 등도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4월 개막하는 베니스비엔날레의 '병행전시'에 선정돼 특별전 '마당'을 개최한다. 특별전에서 선보일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왼쪽)와 백남준의 '고인돌'.



<광주비엔날레 제공>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병행전시 '마당-우리가 되는 곳'은 광주정신 조망은 물론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에 바탕을 둔 다양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열린 공간인 마당에서 이웃들이 모여 소소한 이야기부터 마을 현안을 공유한 영상 등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는 서구 중심 미술사에서 탈피해 제3세계를 아우르며 세계 미술의 흐름과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왔다.

특별전은 모두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연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30년간 비엔날레 변천사와 주제, 역대 전시 포스터를 비롯해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임명, 전지 주제, 참여 작가 목록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다큐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간'은 인터뷰 형식을 매개로 그동안의 내력 등을 돌아보게 한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의미를 확장하는 3명의 한국 여성 작가 작품이 주제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백남준의 '고인돌' (1995),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1995) 두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비엔날레가 지

향해온 가치를 작품으로 만난다.

백남준의 '고인돌'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공동체를 위해 기획됐다. 고인돌 거석 형태로 쌓인 TV와 장독 같은 전통 오브제를 병치시켜 설치했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보트 피플'이 내재하는 난민 공동체의 삶을 은유하는 작품이다. 보트 피플이 남기고 간 햇볕, 타이어, 배 등을 토대로 쿠바에서 보트로 탈출했던 난민들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김

실비, 김아영, 전소정 여성 작가 3명의 전시작품을 만난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소장 유물인 '양은 합지박'도 전시될 예정이다. 항쟁 당시 광주 어머니들이 시민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만든 주먹밥을 담았던 그릇이다.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담은 소장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마지막 섹션은 아카이브 섹션. 이곳에서는 전시 포스터를 비롯해 티켓, 리플렛, 전시 도면 등 실물 자료와 디지털 소장 자료 등을 엿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폴리 작품 제작 과정 다뤄 제작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

광주폴리시민협의회 11차 회의 지역상권 연계 둘레길 조성 의견도

제5차 폴리 작품 제작 과정을 다뤄 제작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상권과 연계한 둘레길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 같은 제안은 광주비엔날레가 30일 비엔날레 사무동에서 개최한 광주폴리시민협의회 11차 회의에서 제기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 박양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배형민 제5차 광주폴리 감독이 참석해 제5차 폴리 프로젝트 추진 현황, 2차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착수 보고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폴리 작품 제작 과정을 다뤄 제작 교육 자료로 활용하자는 안과 지역상권과 연계한 둘레길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2차 둘레길은 오는 6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2차 둘레길은 푸른길문화센터를 비롯해 광주폴리 거점 '웃칠집', 꿈집, 청미장, 공집, 제5차 광주폴리 '이코한옥', 광주사람들, 서원문제 등, 소



둘레길 거점이 되는 '숨 쉬는 폴리'

통의 오두막, 잠망경과 정자, 뷰폴리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양우 대표는 "2차 둘레길에 조성되는 제5차 광주폴리 작품 '이코한옥'은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한

옥 지역의 농수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들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친환경 예술공간으로 만든다는 데 폴리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드비엔느·베토벤부터 드보르작 까지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 29일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체임버 시리즈 I'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교향악단은 드비엔느, 베토벤 등 고전시대 작곡가와 드보르작의 곡을 독특한 편성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연의 막은 드비엔느 작 '바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사중주 Op.73 3번'으로 연다. 작품은 대부분 드비엔느가 관악기를 위해 창작한 3악장 구성의 독특한 곡이다. 바순 연주에 한양대 관현악과를 졸업하고 한예중 전문사로 재학 중인 김남훈.

베토벤의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를 위한 세레나데 D장조 Op.25'도 올려 퍼진다. 광주시향 제1바이올린 연주자 강다영, 비올라 조수영을 비롯해 첼로 나유빈, 플루트 박소현이 연주한다.

드보르작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사중주, Op.96'은 '아메리칸'으로도 불리는데, 헝가리 사중주로 구성된 4악장 곡이다. 원곡의 바이올린 1대 대신 플루트를 접목해 신대륙



바순 김남훈

바이올린 강다영

아메리카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았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서울대를 졸업한 강다영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비올라는 전남대 음대, 한예중 전문사를 졸업한 조수영이 맡으며 한양대 음대 박사과정 등을 수료한 나유빈이 첼로를, 동 대학 관현악과를 졸업한 박소현이 플루트를 연주한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및 전당 누리집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가람 청소년 오케스트라 '봄이 오는 소리'

3일 국립나주박물관 중앙홀

어느새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봄기운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언 땅이 녹고 매점이 산과 들에서는 새싹이 움터 올라올 것이다.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이 열린다. 특히 이번 공연은 봄과 잘 어울리는 청소년들의 무대로 꾸며져 신선하면서도 활기찬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은 오는 3일 오후 2시 1층 중앙홀에서 음악 꿈나무들의 향연을 펼친다.

지휘자 김정태(음악감독)가 이끄는 빛가람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곡을 선보인다. 올해 초 창단된 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신장하고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게 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김정태 지휘자는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광산대 외래강사 등으로 활동했다.

공연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비롯해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 9곡의 연주가 펼쳐진다.

서막은 첼리스트 원민의 독주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제6번'을 연다. 웅장하고 장엄한 명곡으로 첼로 독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축망받는 연주자인 원민은 오는 24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금호영재콘서트 데뷔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어지는 순서는 50인으로 구성된 빛가람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무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5번' 등 클래식 음악 외에도 영화 '아이언맨' OST로 친숙한 '더 어벤저스' 연주가 펼쳐진다.

마지막 공연은 이기원 바이올린 클래스 연주자들의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2023년 미국 뉴욕



지휘자 김정태

첼리스트 원민

카네기홀, 링컨센터를 연주 등 다양한 연주 경험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에서 창단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봄이 오는 소리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문화재청, 광주·전남 자연유산 민속행사 11건 지원

광주 충효동 왕버들 기원제, 고흥 신금마을 당산제, 보길 예송리 산신제와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당산제, 그리고 지리산 남악제까지.

문화재청이 올해 지역 자연유산에서 열리는 민속행사(성황제, 당산제, 동제 등) 69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중 광주·전남 자연유산 11건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원에 포함된 광주·전남 민속 행사는 10일 펼쳐지는 정도리 산신제(완도), 23일 봉안리 은행나무 당산제(담양) 등이다. 이어 24일 사당리 푸조나무 당산제, 삼리리 비자나무 당산제(강진)를 비롯해 대치리 느티나무 당산제(담양)도 볼 수 있다.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당산제는 10월 17일에 열린다.

광주에서는 11월 16일 예정된 북구 왕버들 기원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2년 천연기념물 539호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은 추정 수령 400년에 이르는 버드나무다. 예로부터 '일송일매오류(一松一梅五柳)'라 불리며 소나무, 매화나무와 함께 마을을 상징하는 경관수로 꼽혔다. 현재는 왕버들 세 그루만 남아있다. 광주 북구청 문화예술지원과 이우진 담당자는



광주 충효동 왕버들.

<광주일보 DB>

"왕버들 기원제는 '왕이 마을'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마을에서 열리는 뜻깊은 정명 행사"라며 "마을 고유의 민속행사를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지역 자연유산이 지닌 민속·향토성 등을 높이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자연유산을 관리하는 명예활동가 '자연유산 담당나무 할아버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